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3월 4일(금)  
(윤력 2월 2일)  
Пятница  
4 марта 2022г.  
№ 8 (1197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국방부, "특수 작전" 중 러시아 군인 498명 사망

처음으로 러시아 연방 국방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특수 군사작전"의 러시아 군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부서 대표인 이고리 코나첸코브는 3월 2일 저녁 정기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특수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 중 사망자가 있다. 러시아군 498명이 전사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1,597명의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 군 징집병 및 군사학교 생도는 이 특수 작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 외국 석유가스 회사, 사할린 떠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특수 군사작전"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실질적 타격을 입었다. 네덜란드 기업 셸(She)은 지난 2월 28일 가스프롬과의 협력 종료 및 '사할린-2', Salyr Petroleum, '기단 에너지' 프로젝트로부터 철퇴를 발표했다. 또한 '노스 스트림-2'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3월 1일 국제석유가스회사 엑손모빌도 러시아 사업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엑손모빌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사할린-1' 프로젝트에서 사업을 종료하며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중지한다는 보도자료가 실렸다.

엑손모빌은 '사할린-1'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철수할 예정인데 이 과정이 즉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사람, 환경 및 모든 규정된 절차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 사할린주 한인협회 소식

지난 2월 25일(금)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올해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자세한 러시아어 설명 자료 분지 지난 호 게재, -기자주)가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주한인협회가 추진했고 재외공관을 대표해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이기욱 실무관이 참석했다.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이번 주한인협회가 1세 영주귀국 희망자 서류 지원을 본격적으로 돕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2일(수) 박순옥 회장은 청년 봉사자들과 함께 아직 주한인협회의 음력설 선물(쌀 등)을 받지 못한 비코브 1세 어르신들을 찾아 선물을 전달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같은 목적으로 이들은 3일(목)에는 체호브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았다.

## 보건 진료소 상황 안정화

3월 1일(화) 주 정부 회의에서 응급 전화 1-300뿐만 아니라 내과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진료 업무를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유슈코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전하며 응급 전화 1-300 호출 대기시간도 8초 정도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과중한 내과 업무도 가벼워지고 있다고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6호와 8호 보건 진료소에 내과 진료 예약을 위한 일반 창구가 있다. 치과 업무도 크게 호전되고 있으며, 최근 2주 동안 성인들을 위해 800개 창구와 아동들을 위한 1,500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의료 업무는 정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사할린주에 모든 필수 의약품도 비축하고, 계획대로 새로운 의약품도 공급하고 있다. 보건부는 매일 의약품 공급과 가격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할린에서 진료 대기자 명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2달간 9천300명 환자들의 진료가 접수되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 1만여 명이 응

급전화 1-300으로 급성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 환자에 따른 의료 전화 상담을 받았다. 환자가 직접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상 및 전화 상담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원격 진료로 의사는 환자에게 자세한 처방전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과 직접 진료를 위해 환자를 방문한다. 이런 왕진 방식이 1차 진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의사가 급성호흡기 질환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2주째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연해주의 의료진들이 화상 의료 상담으로 사할린의 의료진을 돕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의 콜센터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코로나19와 급성호흡기 질환에 따른 의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된 타지역 의료진들은 고등 수준의 의료교육을 받았고 사할린주의 의료 정보시스템에서 작업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급성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원격 의료 상담은 한 달 더 운영되며, 사할린주의 역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친애하는 사할린주 여성 여러분!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와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여러분 주변의 삶을 밝게 하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새로운 성취를 향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 특별한 배려로 여러분을 보호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관심은 여성의 날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할린주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편안하고 윤택해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에 우리의 지원을 체감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 출산자금과 사회적 지원금, 타지역에는 없는 많은 혜택을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사업을 비롯해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주의 여성분들은 사업적 모임과 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는 한 예가 지난해에 진행된 국제포럼입니다. 사업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경연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훨씬 더 융통성 있는 추진력과 우수한 조직력을 자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제때에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우리는 의료진과 긴밀하게 진료를 받도록 도우며, 원격 진료 상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때때로 위기가 다가와 쉽지 않음을 압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과 좋아하는 일도 찾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가시는 것이 무척 놀랍습니다!

다가오는 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좋은 변화를 선사하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받으시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새고려신문

##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8절을 맞아

# 사할린에서 전공, 여성행복, 마음에 드는 일을 얻은 크리스티나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국제협력정보센터의 1급 사서인 공 크리스티나(본명 콜분 크리스티나, 31세)를 오래전부터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과를 전공한 그는 6년 전에 대학 한국어 과장 임 엘비라 교수의 추천으로 이 도서관에 채용됐다.

도서관의 국제협력정보센터 올라 파트니츠카야 센터장에 따르면 이 센터는 2015년에 개설되었고 센터의 주요 목표는 외국어 학습, 외국 문화 유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인민 외교 협력하는 데 있다. 그런 목적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새 도서관원들을 찾았다. 현재 이곳에서는 외국어 배우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 애호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사할린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한국 재외 공관도 있으니 당연히 한국 언어와 문화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크리스티나가 채용되었다. 크리스티나는 사서로서 업무를 익힌 후 바로 한국어교육과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애호가 클럽 모임 일환으로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짰다. 생각보다 한국어 수강 희망자는 빨리 모집되었

다. 희망자는 항상 많다고 한다. 결혼하고 3년 육아 휴가를 가진 후 크리스티나는 2020년에 도서관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한국어 애호가 클럽 운영은 물론, 다양한 행사 개최를 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에서 새 기획을 세우고 있는데 7-12세 학생들을 위한 <방석에 앉아서 한국어 익히기>란 프로그램이다. 영어와 관련 같은 기획이 있는데 한국어도 하고 싶다고 정보센터에서 말한다.

또 한 프로젝트는 에세이 쓰기다. 주제는 한국 신경속 작가의 러시아어로 번역된 "어머니를 부탁해"소설을 읽고 소감을 에세이로 쓰기인데 이 기획은 이번 주부터 추진된다. 심사는 5월에 할 예정이고 그때 우수 작품은 이 기획을 협력하는 새고려신문 지상의 러시아어판에 실을 예정이다.

사서로서의 할 일도 많다. 2020년에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이병일) 한국 책(교과서, 소설, 동화책 등) 1500여권을 주일반과학교도서관에 전달했다. 이 모든 책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다.

"각 책에 대한 정보를 카드에 적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 읽고 간단히 내용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하

거든요. 교재 같은 경우 쉽게 소개할 수 있는데 소설은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데 때로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어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거의 3년 한국어를 접촉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래요."라고 공 크리스티나가 말했다.

크리스티나의 아버지는 러시아인이고 어머니는 사할린 한인동포이다. 사할린에서 군복무를 했던 아버지가 돌린스크 출신의 한인 아가씨와 열애를 하고 복무 마친 뒤 자기의 고향 - 아무르주의 한 마을에 데려갔다. 학교를 졸업한 크리스티나는 세관 업무 관련을 대학에서 전공했는데 반년이 지나 이것이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은 아니다란 걸 깨달았다고 한다. 더 이상 대학에서 공부 못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알리고 휴학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까'란 고민에 빠졌다. 아무르주는 중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 한 친구를 통해 중국 문화, 드라마를 접하고 검색하다보니 일본,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되었다. 차츰 한류에 빠져 있었고 한인 피가 섞여 있다 보니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울 건지, 블라디보스토크 아니면 사할린을 고민하다 사할린을 선택했다고 한다. 크리스티나가 어릴 적에 자주 오는 곳이었던 때문이다. 어머니의

거의 모든 친척이 돌린스크에 살고 있고 또한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교육이 잘 돼 있다는 정보에 사할린국립대를 온 식구가 추천했다.

"저는 어릴적 부터 러시아인으로 자라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일찍이 시집가셔서 한식을 못했고, 러시아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엄마랑 사할린 외갓집에 가면 제가 맨밥만 먹고 매워서 반찬을 먹을 줄 몰랐어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차츰 한식의 매력에 빠졌지요."라고 크리스티나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였다.

처음엔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끝날 무렵에 돌린스크에 한 칸짜리 집을 임대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버스로 한 시간 이상 떨어진 돌린스크에서 살게 된 것은 방값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숙사 여건 더 나았다 싶었고, 적응해가니 괜찮다 싶었다. 이곳에 모든 친척들도 살고 있으니 더욱 그랬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도 계속 돌린스크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랑도 만났다.

"제 신랑하고는 우리 집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친척이 되신 할아버지께서(어머니의 외삼촌) 소개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엔 절대 안 만나겠다고 거절했는데 어느 하루 승락을 했지요. 그때 마침 저의

어머니께서 사할린을 찾아오셨고 이 두 분(할아버지와 어머니)이 계시는 가운데 처음 만났지요. 그때 감정은 너무 흐리고 예비신랑이 마음에는 썩 들지 않았습디다."라고 크리스티나가 회상했다. 차츰 만나보니 서로 의지하고 애정도 생겼다고 한다. 크리스티나는 믿음직한 남자를 만난 게 행복하다고 한다. 시집가면서 러시아 전통에 따라 남편의 성인 '공'을 따랐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곧 다섯 살이 된다. 가족이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젊은 엄마, 아빠는 아이 성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같이 놀고, 놀면서 가르치고, 산책하며 웃으며 화목하게 시간을 보낸다.

"남편이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오후 근무(2교대)를 할 때 아들도 잘 봐주고 집안 일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합니다."라고 크리스티나가 이야기했다. 오후 근무가 끝나면 그는 돌린스크로 가는 막차를 타고 간다. 거기에는 그가 사랑하는 두 남자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여성의 행복이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발전시키는 재미있는 일이었다는 것도 그렇다.

크리스티나는 '고난을 지나 별을 향하여'라는 표현을 인생의 표어로 여긴다.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크리스티나는 1주일에 한 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수강생들에게 강사로서 좋은 자세로 다가간다. 이번 월요일 수업시간을 다녀간 필자가 이를 확인했다. 여러 교재를 이용해 과제를 준비하고 명확히 설명해주어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한국어 과정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여기 수업에 20대 대학생부터 70대의 연금자들이 찾아온다. 20명의 모집 인원은 빠른 시일 내에 마감된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도서관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 수강생 중 K-팝을 좋아하는 사람,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 한국 사람인 시아버지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러시아인 며느리, 앞으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손녀를 생각해서 이에 먼저 도전하는 러시아인 할머니, 자기 민족 언어를 배우고 싶은 30대 여성 ... 이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공 크리스티나가 정말 자랑스럽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700명의 낚시인들 <사할린의 얼음> 대회에서 경쟁

2월 26일 <사할린의 얼음> 낚시 애호가들의 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대회에 7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낚시 축제에 연해 주, 부랴티야, 이르쿠츠크 지역들에서 온 팀들을 포함해 178개 팀(1팀에 4명으로 구성)들이 돌린스크 구역의 나이바 강가에 모였다. 어획량 측정을 통해 우수한 50 팀이 2차 개인 경기인 <낚시 바이애슬론>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2차 대회 참가자들은 차례로 4개의 얼음 구멍을 뚫고, 첫 구멍에서 물고기를 낚은 후 다음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 <사할린의 얼음> 대회는 처음으로 사할린주 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낚시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에서는 주변 관광도 마련됐다. 관광객들은 낚시 애호가들에게 교통편, 음식을 제공하고 낚시대를 대여해 주었고, 관광객은 50여 명 정도였다.

대회의 일환으로 러시아 셰프 팀(Chefs Team Russia) 단체의 셰프가 코류쉬카와 나와가로 요리하는 활동교실도 열렸다. 이번 대회의 주요 상품은 4륜 오토바이로 낚시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아니와에서 온 바짐 포야르코브에게 주어졌다. 여자 낚시 바이애슬론 대회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나탈리아 마르티뉴크가 우승했고,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팀은 '사할린노츠크'로 43.6cm의 나와가를 잡았다.

팀별 대회에서는 비코브 마을의 '샤호초르'팀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피쉬카 베즈 맨오프'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낚시 바이애슬론 대회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간 우승자들 사이에 경기도 진행된 가운데 우승은 2020년의 우

승자인 드미트리 지드콥스키가 차지했다.

모든 참가자들과 낚시 애호가들을 위해 따뜻한 무료 식사와 몸 녹일 장소, 이동 장터, 문화 오락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 Семь сотен рыбаков боролись за призы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26 февраля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700 человек.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обрал на реке Найб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178 команд( по 4 человека в каждой), в том числе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Бурятии и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взвешивания 50 команд с лучшим уловом прошли во второй этап – "Рыбачий биатлон", в котором каждый сам за себя. Участники бурят поочередно 4 лунки, к следующей можно переходить тольк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тянул рыбу из первой.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л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К месту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овали тур. Туроператоры обеспечили рыбакам-любителям трансфер, питание, предоставили удочки. В числе туристов – 50 человек.

В рамка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стоя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из наваги и корюшки от шеф-поваров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Главный приз соревнований – квадроцикл – достался жителю Анивы Вадиму Пояркову, который стал лидером в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В женском рыбацком биатлоне победила Наталья Мартынюк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мую крупную рыбу удалось добыть команде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очка" – размер наваги составил 43,6 сантиметра.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ервые места взяли "Шахтер" из села Быков и "Фишка без мэ-нOff"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роме того, в честь 10-лети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Рыбачий биатлон"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стязание между победителями прошлых лет. Лидером сорев-

нований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номинации стал чемпион 2020 года Дмитрий Дидковский.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болельщиков был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есплатное горячее питание, места для обогрева, выездная торговля,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общает ПСО.

### 동계 스포츠 종목의 날, 사할린에서 크로스컨트리, 활동교실, 오락 등으로 기념

2월 26일과 27일에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다양한 수준의 아동들이 참여했다. 사할린 지역 여러 도시의 행사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여러 지역에서 온 주민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실제로 사할린주 전역에서 이 기념일을 기렸다. 홈스크 지역에서는 알파인스키 경기와 피겨스케이팅 공연도 펼쳐지고, 돌린스크 지역에서는 펠트신을 신고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고, 코르사코브에서는 스포츠 애호가들이 스키 경주에 참가했다."고 사할린주 올림픽협회 블라디슬라브 글루호브 회장이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는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하부와 중간 역에서 기념한 가운데 가장 어린 스포츠맨들을 위한 '네왈라쉬카'클럽이 진행하는 알파인스키 활동교실이 열려 아동들에게 기본 스키 타기와 하강법도 가르쳐주었다. 또 하나 '바이크 미 사할린(Bike me Sakhalin)'학교를 열어 여기에서는 2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을 위한 밸런스바이크 타기와 다양한 연령별 경주가 펼쳐졌다.

행사 방문객들을 위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념 메달도 준비했다.

(8면에 계속)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16만1,878명 참여

### 투표율 71.6%

### 19대 대선보다 3.7%포인트 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1,878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6만여 명 줄었고, 투표율은 3.7%포인트 낮아졌다. 18대 대선 때 선거인수와 투표자수, 투표율과는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재외투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 하에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 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7만8,051명(70.4%), 미주 5만440명(68.7%), 유럽 2만5,629명(78.6%), 중동 5,658명(83%), 아프리카 2,100명(82.2%)이다.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4곳에서는 930명이 투표했다.

(7면에 계속)

<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

구 분	제20대 대선 (22. 3. 9)	제21대 국선 (20. 4. 15)	제19대 대선 (17. 5. 9)	제20대 국선 (16. 4. 13)	제18대 대선 (12. 12. 19)	제19대 국선 (12. 4. 11)
선거인수	226,162명	171,959명	294,633명	154,217명	222,389명	123,571명
투표자수	161,878명	40,858명	221,981명	63,797명	158,225명	56,456명
투표율	71.6%	23.8%	75.3%	41.4%	71.1%	45.7%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아니와, <입춘대길>한민족 문화체험 행사 펼쳐

지난 2월 26일(토) 아니와 유·청소년창작회관에서 2022년 러시아 다민족 문화유산의 해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입춘대길>체험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 주최로는 얼마 전에 창설된 사할린주 한국어교원 창작회(회장 배영희)와 아니와 유·청소년창작회관이 나섰고, 후원은 사할린 한국교육원이 하였다.

이날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창작회관에는 민화와 다도, 잔치국수 등 활동교실, 민속춤 교실 등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입춘대길 행사 방문 소감을 전했다.

'2022년 2월 26일(토), 오늘 나름의 역사를 썼다. 아리랑 앙상을 단원 어르신 4분과 아니와를 방문하여, 아니와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니와 한글학교 한국 문화체험 행사에서 밀양아리랑 민속춤 한 클래스를 운영했다. 아니와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배영희 선생님과 어머니의 헌신, 흠스크 한글학교 이진선 선생님 및 문화센터 선생님들의 수고에 힘입어 의미있는 첫 지방도시 한국문화체험 봉사의 역사를 썼다.'

배영희 선생님은 매년 아니와 시와 문화센터의 지원과 참여에 힘입어 아니와 문화행사의 주역으로 활동하신다. 어머니와 가족들 또한 그 성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교육원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한국적인 색을 지닌 문화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흠스크 한글학교 선생님, 학생들의 봉사와 헌신도 문화적 협업의 역사 한 부분을 구성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민요, 민속춤 외에도 한국 다도와 떡, 한국 민화와 채색, 창작 무용 등의 발표와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는 곳곳의 공간에서 딱지를 꺼내 딱지치기를 제안하며 오징어게임 드라마를 다시 연상시켜 주었다. 청소년들 및 어른 한 분과 꿀밤맛기 딱지치기를 했는데 여러 대 때릴 만큼 이겼지만, 흥내만 냈고, 한 대 맞을 뻔 하기도 했다. 딱지를 보자마자 오징어게임을 기억하는 그 자동적인 반응에 놀라웠다.

배 선생님 어머니와 가족은 국수를 삶아 어린 참가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따로 국수를 담아 주셨다. 작은 남쪽 도시에서 마을 잔치가 벌어져 국수와 떡, 양갱을 먹고 차를 마시고 춤을 추고 잘 놀다 온 기분이 짝 찬 느낌이다. 아침에 아니와시로 들어서기 전에 잠깐 들른 아니와 해변은 하얀 설원이었고, 그 위에서 춤 연습을 하던 우리는 설원의 백조가 된 느낌이 아니었나 싶다. 햇빛을



받아 부서지는 흰 포말들은 은가루처럼 해변을 물들였다.

사할린의 한인공동체를 생각하면, 유즈노사할린 스킨나 흠스크, 아니와 외에 풍성한 문화적 체험거리들이 적다는 점이 늘 아쉽다고 생각하곤 했다.

오늘 아리랑 무용단 어르신들의 소망과 배영희 선생님의 기획, 이진선 선생님의 협업, 나의 진한 아쉬움이 만나 작은 시작을 만든 것 같다. 돌린스크, 포로나이스크 등에도 이런 협업으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마 계획 중이신 것 같다.

사할린에 11개의 한글학교가 있는데, 어찌보면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라기 보다는 한인공동체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활발하고 즐거운 사업들이 기획되고 꾸러질 수 있도록 왕성한 한인 문화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 등을 신경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공간 마련이 참 중요하다. 풍성한 문화적 다양성을 증시하는 사할린과 각 도시의 공간을 이런 문화체험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인 조직들이 조금만 협의를 더 해 나간다면 한민족의 산하 예술조직, 교육원, 타 한글학교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팀 약 60여명의 학생, 어른들과 밀양아리랑 춤을 추었더니 피로가 몰려 오지만 입가엔 웃음이 지는 토요일 저녁이다.'

(사진: 사할린주 한국어교원 창작회 제공)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주말을 기다린다 / 박화목

당신은 주말을 기다리는  
나의 한 없이 고독한 모습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요사이같이 사건이며 증명이며 상거래며  
국제 사정이 더 번잡한 나날에는  
진실로 안타까이 그리워하는 주말을 기다리는  
나의 하염없이 초조하고 우울한 인생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말을 먼 소망같이 기다리는 까닭은,  
이날 어느 한적한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고독을 아끼는 사람만이 문을 열어 보고 가는 어느 흰 벽의 찻집에서  
나의 청춘을 소모하면서 기다린 당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자리를 권하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또한 나는 당신에게 커피 한 잔 이외에는 다른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만 열린 병어리인 양 시선만 마주쳐 웃고  
전축에서 울려오는 베토벤의 아델라에테에 귀 기울이며  
네 개의 동공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깨닫고  
저절로 감겨지는 것입니다

"커피, 커피를 마시는 시간. 어쩌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언젠가부터 저는 직접 커피를 볶습니다. 일명 로스팅. 생두를 사서 전용 팬에 굽는 거죠. 처음엔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로스팅 중 날아다니는 커피 껍질이며, 깜빡하고 좀 더 굽고 있노라면 탄 내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짝 볶으면 신맛이나 떫은 맛이 커피 맛을 방해합니다. 쉬울 것 같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구운 원두, 저만의 원두를 이제 한 톨 한 톨 소중히 병째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를 뒤부터 내려 마시는 거죠. 더치 커피로 느릿느릿 대어섯 시간을 내린 뒤, 저온 숙성 시켜 하루 뒤부터 마시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정성입니다. 이리다 보니 장비들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더치 커피 머신이며, 핸드 드립, 모카 포트 등이 사이즈 별로 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 역시 수동이든 자동이든 자동,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또 귀찮아지더라고요. 요즘엔 이마저도 귀찮아서 주로 네스프레소 머신과 캡슐을 통해 카페인과 만나는 중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야 잠시일 뿐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는, 아무 생각 없는 일명 '멍' 때리는 시간이 좋아서요. 인간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뇌는 집중을 방해할 수 있도록 짜여 있었어요. 이를테면 의식의 흐름이야말로 곧 산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몸살입니다. 흠이 많아 보이는 유력한 후보들이 제 눈에 아귀다툼처럼 싸우는 형국입니다. 저는요. 누가 권력의 반지를 끼게 될 지 깊게 관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저 '멍'하니 커피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음미합니다. 정치와 국가 예산의 쓰임새에 관심이 많지만, 이번 선거는 어쨌든 그 누구라도 선통 손 내밀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태평천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유투피아가 없을 거라는 걸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저 큰 탈 없이 국경이 이어지기를, 예산이 터무니없이 엉뚱한 곳에서 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살아계셨더라면 박화목 시인 역시 지긋이 눈을 감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만 같아서요. 커피 잔을 기울인 채."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재외동포재단, '제2회 초청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 개최

### 석·박사 졸업생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 소감 발표 등 네트워킹 활성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졸업생과 재학생 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초청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를 2월 25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졸업생 10명(석사 8명, 박사 2명)과 중국, 중남미, CIS 등 다양한 국가의 재학생 80여 명, 그리고 현지 대학교수(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출신 포함) 6명이 멘토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졸업생들이 논문 개요와 향후 진로계획, 졸업소감 등을 발표하고 멘토 선배들은 이에 대한 코멘트와 격려, 조언 등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재학생들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졸업 축하·응원 메시지 등을 졸업생들에게 전달했으며, QnA 시간을 통해 논문 준비, 학업생활,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재학생 후배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곤 이사장은, "초청장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라며 "우리 동포사회의 미래인 재외동포 초청장학생들이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1997년 설립 당시부터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2월 현재까지 약 1,540명을 선발하여 국내 수학을 지원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Библиотека объявила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по книг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Конкурс читательских эссе,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изведению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к, стартова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 28 февраля.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рше 16 лет.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к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писател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об идеях, высказанных автором в книгах,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рочитанного и другим.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 мая. Их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k.kop@libsakh.ru или принести лично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й этаж СахОУНБ). Объявление итогов Конкурса и награждение состоится 19 мая.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а авторы эссе, набравши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призами от библиотеки и партнеров. Лучшие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и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ГБУК СахОУНБ в разделе Конкурс.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47.

## Детей приглашают в клуб «Корейский на подушка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в языковой клуб «Корейский на подушках».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7 до 12 лет и с разным уровнем подготовки.

«Корейский на подушках» –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детей,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игровой форм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бятам было легче преодолеват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и учиться выстраивать речь. Кроме того, на встречах дети будут читать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играх, викторинах 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Во встречах мож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разово, поскольку каждое занятие –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и законченное.

"Корейский на подушках"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торой этаж СахОУНБ) один раз в месяц.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занятия — 1 час. Участие бесплат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Справки и запись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47

## «입춘대길 건양다경» Пришла весна, да увидим мы много счастливых дней!

26 февраля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Анива распахнул свои двер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любителей и знатоков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и.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в Аниве уже стали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В этот раз праздник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году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Красочная вывеска на входе обозначила всю дальнейшую тему программы «Весна пришла 입춘대길». Как сказа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юниль: Я был уверен, что об этом календарном дн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знают, поэтому я сегодня приятно удивлен».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за окном мороз и снег, в этот день в стенах ДДТ везде царил весна. Площадк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были заполнены желающими.

На открытках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ожеланиями 입춘대길 건양다경 распускались цветы вишни, а на площадке мастер-класса «Минхва» царила яркая палитра в традиционных цветах Кореи, а также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сюжеты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бретал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 «Тигр и сорока», яркая вышивка с церемониальных одежд, лотосы - все это напоминало настоящую ярмарку. Впервые в Аниве показали корейскую чайную церемонию. Уезд Босо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толицей чая, связывают с Анивским ДДТ тесные узы дружбы. Анивские ребят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выезжали в Босон, а также принимали у себя группу школьников. А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и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узнали о тонкостях сервировки и традициях чаепития по-корейски, продегустировали настоящий корейский чай и сладости. В прошедше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акже 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глашенные гост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ансамбль «Ариран» поделились секретами основ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На мастер-класс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как учащиеся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ДДТ, так и их руководители.

И конечно, какой праздник без угощений. В этот раз для гостей приготовили чанчи куксу. Секретами и историей блюда поделилась анивчанка Ли Сам Суни.

Праздник удался. Неважн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еще зима. Сегодня по календарю уже наступила весна!

«입춘대길 건양다경» Пришла весна, да увидим мы много счастливых дней!

Праздник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и подготовлен усилиями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е А.А. (г.Анива), Ли Е.М. (Холмск), О А.В. (Корсаков СОШ № 4)

Особ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ражают директору М.Е. Кузьминой и всему коллективу педагогов ДДТ.

**Педагог Анжела Анатольевна Пе о творческом объединении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Все-таки нам, педагогам, не хватает творчества.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идея объединить уси-



лия именно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вести серию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грамм, которые очень хорошо вписываются сейчас в программы 2022 года. Этот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Не привязываясь к политике, это для меня было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наша цель – познакомить с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люд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начиная с малышей из детского сада и заканчивая взрослыми людьми. Опыт, который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мы реализуем в детском доме творчества в городе Анива,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Я обратилась за поддержкой к своим коллегам Евгении Михайловне Ли и Алле Валерьевне О, они меня с радостью поддержали. Этим составом педагогов мы были не раз в Корею. Так родилась идея серии мастер-классов в городах области, где мы покажем, познакомим и расширим знания о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оставляют весомую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ы пригласили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месте с нами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Наш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в Аниве получился удачным. Нас уже ждут в Корсакове, Долинске, Холмске и Поронайске.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 Сахалинцы освоили искусств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узелкового плетения мэдып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1 марта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Гостя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научиться традиционному узелковому плетению мэдып.

Мастер-класс прове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львира Лим. Встреч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хранение, развитие и популяризац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ведущая мастер-класса, лицевая и оборотная стороны в корейском плетении одинаковы, в отличие от макраме. В мэдып узелки вяжутся из одного шнура, а в макраме – из двух и более. Каждый узел имеет свою легенду, а название узла отражает его форму и значение. Узлы зачастую используют для выражения добрых пожеланий (счастья, процветания, любви, удачи). Магический талисман из узлов способен гармонизировать энергию в доме,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негатив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углов и других предметов. Существует много типов узлов: «бабочка», «сверчок», «стрекоза», «хризантема» и другие.



УЗЕЛКОВОЕ ПЛЕТЕНИЕ МЭДЫП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КОРЕИ

Участники двухчасового мастер-класса трудились над изготовлением браслета с бабочкой, символом любви, счастья и радости.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 показан процесс плетения браслета с пошаговой инструкцией.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для работы раздаточный материал,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отметили 103-ю годовщину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1 март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103-й годовщины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С учётом сложной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сокращённом формате.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с первой леди Ким Чжон Сук,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Пак Пён Сок, лидеры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Ю Нам Со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яда других ключев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страны, всего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состоялась минута молчания в память о павших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Была зачитана Декларац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ричём не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но и на рус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япон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иностранцами,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ми в мире информацию о данном документе, который сыграл важную роль в истории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вруч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четырём потомкам активистов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этой дате, проходят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общили, что их участники строго соблюдают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 КНДР сообщила о проведении испыт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разработкой спутника

«27 февраля нац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НДР и Академия оборонных наук провели важные испытания в рамках плана разработк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 сообщило 28 феврал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Испытания «помогли подтвердить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точность работы системы фотографирования высокой чёткости, системы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и устройств управления ориентаци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Разработка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входит в число ключевых оборонных проектов, о которых Север сообщил на съезде правяще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янва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восьмой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акетный запуск произведён из района аэропорта Сунан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Пхеньяна. Ракета пролетела около 300 км, достигнув максимальной высоты 620 км.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последний запуск я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 испытанию ракеты дальнего радиуса действия. В прошлом Пхеньян неоднократно утверждал, что проводит запуски спутников в рамках «мирного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которые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как испытания ракет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 Гражданам Украины, находящимся в РК, продлено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длило гражданам Украины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соображениям. Как сообщили 28 февра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3.843 человек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по истеч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получат разрешения на дальнейшее 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им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Те, че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уже истёк, смогут покинуть РК после 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в Украине.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налогичны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дление пребывания были выданы гражданам Мьянмы после совершённого там во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 В феврале экспорт РК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 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февр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ё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вырос на 20,6%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53 млрд 91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1 мар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экспорт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й для февраля отметки,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в 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Отмечен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зарубежных поставок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средств беспроводной связи, компьютеров, дисплеев,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продукции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мпорт вырос на 25,1%, составив 53 млрд 70 млн долларов. Его рост во многом объясняется резким увеличением цен на энерге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Про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составил 840 млн долларов.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оказался профицитным впервые за три месяца.

## Сети Wi-Fi со скоростью 5G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в поездах метро Сеула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поездах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начну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услуги Wi-Fi со скоростью 5G. Как сообщили 16 февра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етевые услуги 5G в диапазоне 28 гигагерц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на линиях 2, 5, 6, 7 и 8. Это,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высит скорость Wi-Fi внутри поездов в десять раз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средним значением 71,05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Мбит/с). Оборудование 5G должно быть подготовлено к апрелю и установлено в поездах метр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В январе технология была успешно протестирована между станциями «Синсолдун» и «Сонсу» линии 2. (RKI)

## У основ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равная поддержка

До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9 марта, остаётся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но опросы избирателей по-прежнему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у основных кандидатов Ли Чжэ Мёна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 Юн Сок Ёля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римерно равные уровни поддержки. Фактически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оих поддерживают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по 40% избирателе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24 по 26 февраля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ей KBS среди 2 тысяч взрос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оба основных кандидата получили по 39,8% голосов.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по популярности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от основных кандидатов Ан Чхоль Су из оппозиционной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 8,2%.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Сим Сан Чжон из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3,5%. Ли Чжэ Мёна поддерживают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40-50 лет, а Юн Сок Ёля – от 18 до 30 лет и старше 60 лет. 79,7% опрошенных заявили, что будут голосовать за того кандидата, которого поддерживаю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вопрос, к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избран президентом, 46,7% ответили, что это будет Юн Сок Ёль, а 42,2% - Ли Чжэ Мён. 53%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необходимым переход власти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к оппозиции, а 39,6% выступают за стабильность вла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нынеш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о рейтинг одобр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составил 46,7%. Политику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и основно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одобряют по 36,9% опрошенных. В поддержку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высказались 4,7% респондентов, партии Спра-



ведливости - 4,5%. 89,3%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заявили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роводившихся KBS. По мнению респондентов, Ли Чжэ Мён лучше других кандидатов может справиться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а с проблемами недвижимо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 Юн Сок Ёль.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кто лучше всех показал себя в ходе теледебатов, 37,9%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Ли Чжэ Мёна, 31,3% - Юн Сок Ёл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 на сайте KBS.

Фото: YONHAP News

## В Южной Корее впервые в мире ввели посадку на самолет по отпечатку ладони

Южная Корея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казалась впереди всего мира по части внедрения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Теперь для авиаперелета не надо предъявлять посадочный талон. Его роль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 ладонь пассажи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сервис ввела компания Korean Air в сеульском аэропорту Кимпхо. Теперь для прохода на посадку необходимо приложить ладонь к специальному сканеру, чтобы ваша личность и данные о рейсе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данная услуга действует пока только дл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7 лет. Н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регистрации своих ладоней и отпечатков пальцев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устройств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новшество позволит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регистрации и посадки, а также повыс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авиаперевозок.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а, посте-

пенно они намерены расширять географию аэропортов страны, где будет возможна посадка на рейс по ладони.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такая услуга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Кимхэ (город Пусан), а затем уже и во всех воздушных гаванях Южной Кореи.

Отметим, что в сеульском аэропорту Кимпхо и в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 уже работают сканеры, позволяющие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пассажиров по ладони без предъявления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Теперь же аналогичный принцип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и при посадке на борт.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коро не понадобятся любые документы.

По слов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технология идентификации людей по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кровеносных сосудов на ладонях более точная и совершенная, чем распознавание по отпечаткам пальцев. Постепенно новинку внедряют в самых разных сферах, включая финансовую, позволяя совершать покупки бе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т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В РК временно отменяется предъявление вакцинных пропусков

С 1 марта в РК временно отменяется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едъявлении вакцинных пропусков для входа в рестораны, кафе и други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Чон Хэ Чхоль, выступая 28 феврал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меньшить нагрузку на работник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выдачей сертификатов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результате теста на вирус. По его словам, это поможет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борьбу с быстры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и сосредоточить усилия на лечении пациент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группам риска. Министр сообщил, что около трёх тысяч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тысяч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258 мест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в борьбе с ростом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RKI)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держать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аботу поликлиник, в частности терапевтов и стоматологов, а также линии 1-300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да было и остается приоритетом в нашей работе. Но сейчас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бы сфера медицины работала как часы. Прошу доложить 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как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доступность для граждан при обращении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к зампре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По словам Владимира Ющука, за неделю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ась. Среднее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абонента при звонке на линию 1-300 составляет 8 секунд. Отмечается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заболевши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За счет этого у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терапевтов.

– У нас есть свободные ячейки для записи на прием к терапевту, например, в шестой и во второй поликлини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ась ситуация в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е. Для взрослых доступно более 800 ячеек, для детей – почти полторы тысячи на ближайшие две недели. Все медицинские службы работают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 в регионе сформирован запас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лекарств, поставка новых парт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графику, минздрав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отслеживает их доступность и изменение цен,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ют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лист ожидания. За два месяца с его помощью на прием записали 9300 пациентов.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ОРВИ 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 помощью телефонного сервиса 1-300 получили более 1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идео- или аудиоконсультация помогает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сетить поликлинику.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м приеме врач дает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тактике лечения. При наличии угрожающих симптомов к пациенту направляют медработника для забора анализов и проведения очного осмотра. Такой формат помогает равномерно распределить нагрузку на первичное звен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тобы врачи могли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и по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 не только по ОРВИ.

Вторую неделю островным медикам помогают коллеги из Приморья, привлеченные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 проведению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работает колл-центр для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вопросам ОРВИ 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се привлече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меют высше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шли подготовку для работы в медицинск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используем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м, теле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ОРВИ 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ещ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Решение о продлении программы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пидситуации на островах.

### Более 600 тысяч цветов высадя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22 год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политик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качественному озеленению города и созданию н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 предложил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ть объём цветов, которые летом будут высажены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Об этом шла речь на совещан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мэром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ыло высажено порядка 300 тысяч цветов, кроме того, преобразились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сле ремонта открылся сквер Пограничников. Как отметил мэр город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работа по озеленению города ведется планомер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и, безусловн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крайне важна поддержка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мим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Зеленый город», заниматься озеленением на своих территориях будут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а также предприятия торговли и сферы услуг.

– Следует выбрать какие-то главные места в городе, где будет высажено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цветов и кустарников. Это будут доминанты, на которые будут равняться пр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других территорий. Все необходимо заранее спроектировать и обсудить с жителями. Подготовку надо закончить уже в марте, чтобы с приходом тепла уже высаживать растения и увеличивать темп. К Дню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лжен максимально преобразиться. Комфорт созд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ремонтом дворов и дорог и их чистотой, но и насаждениями цветов и кустарник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сновной упор планируем сделать на скверы и самые крупные улицы города.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м высаживать цветы и кустарник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где недавно были снесены ветхие строения. Вся эта работа задумана в едином стиле, предприятиям тоже будем рекомендовать украшать территории в едином стиле, – рассказ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Как отметили в мэрии, уже достигну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поставках рассады. В приоритете будут островные совхозы. Вместе с тем специалисты ра-

ботают над тем, чтобы занести точки предстоящей работы на интерактивную карту. Ж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на каких отрезках улиц появятся цветы, каков будет их видовой состав и количество.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держать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 работы торговых сетей

С этих тем 28 февраля нача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Глава региона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ы по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боты.

– Я лично встретил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сн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торговли, выслушал их информацию.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они понимают ситуацию и следят за тем, чтобы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было доступно и по ценам, и по ассортименту. М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обещаем им помочь по транспорту и доставк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нны Павленко,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мониторинг. Цены на вс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е товары стабильны, ассортимент представлен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Запасов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регионе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Минсельхоз заключил соглашения с оптовиками и сегодня начались выплаты на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расходов поставок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тметим,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ведут постоянную работу над те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региона.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бласти возросло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молока, яиц, картофеля и овощей. Например,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в 2021 году произвела 3,8 тысячи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 2022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извести 4 тысячи тонн, а в 2023 – 6 тысяч тон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ет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а потребность регио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яйца увеличат до 130 миллионов штук, также закрыв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На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анковской сферы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том, чтобы вопросы по кредит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предприятий строительного сектора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с участ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ё, что сегодня строится,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на прежних условиях. А всё, что планируется,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все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были построены, –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Замп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в докладе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банковской сфере ликвидность банков подкрепляется Центральным Банком РФ. Объем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достаточен, чтобы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банков.

### Сахалинские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штрафуют за некачественную расчистку дворов

Всего с начала 2022 года н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наложено более 2,5 млн рублей штрафов за различные нарушения.

– Если вы видите, что ваш дом или двор содержится ненадлежащим образом, сообщайте мн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а зима у нас выдалась снежная, и после циклонов от жителей поступает множество жалоб на плохую уборку снега. По всем обращениям проводятся проверки.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не справляются со своей работой, ждут наказания.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мы готовы помогать жителям – проводить собрания и менять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Госжилинспек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мотрела 49 дел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я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вынесено 11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26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штраф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свыше 2,1 млн рублей. В судах общей юрисдикции рассмотрено 13 дел. Назначено 2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7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штрафа на общую сумму 385 тысяч рублей.

Лицензио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нарушили 17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Томари, Анивы, Курильска, Южно-Курильска.

Чаще всего управля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водят к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у наказанию несвоевременная расчистк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захламливание подвалов, некачественная уборка в подъездах, наледь на кровлях. Также сред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нарушений – плохое состояние подъездов, инженерн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систем отопления,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ненадлежащее качество холодно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 Управляющую организацию могут лишить права управлять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м домом, есл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ее дважды привлекали по одному из нарушений. При этом могут отобрать как один дом, так и все. Санкция зависит от вида грубого нарушения.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я может получить штраф или лишиться лицензии, если будет нарушать требования по управлению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м домом, – поясн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нтин Истомин.

Если управляющ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е исполняет предписание по одному и тому же адресу, то данный дом в течение 30 дней по решению собственников переходит в управление другой УК.

Напомн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ыла запущен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арта расчистки: [https://map.sakhalin.gov.ru/mobile/map/Clean\\_Snow/#/](https://map.sakhalin.gov.ru/mobile/map/Clean_Snow/#/). С помощью цифрового сервиса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следить за ходом

уборки н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Если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передают не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м грозят штрафы.

### 35 быстрых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для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установ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2 году

Чтобы «заправить» электрокар на 100 километров, потребуется всего 10 минут.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дет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Мы хотим, чтобы больш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ыбрали электротранспорт. Он в разы экономичнее и не наносит вред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Поэтому мы создаем сеть современных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вводим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окар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ке быстрых электр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ОО «Иви-Тайм» (компания-инвестор займется установкой ЭЗС), ООО «Парус электро»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 ЭЗС в регионе).

– Речь идет об электрозарядных станциях мощностью 150кВт на постоянном токе. Основное их преимущество – быстрая скорость заряда. 35 таких ЭЗС большой мощно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в юж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Гузенко.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установлено уже 81 зарядная станция дл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ключена в перечень пило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лектрическ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о позволи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2022 году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и получить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создание заряд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знать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электро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можно с помощью онлайн-карты электрических заправок: <https://minenergo.sakhalin.gov.ru/electro-transport/map/>. Там обозначены как действующие станции, так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места под их установку.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лностью обнулили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окаров на островах. Ранее этот платеж был снижен в два раза.

Налоговая льгота – 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ействующа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товладельцам также организуют специальные парковочные места для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возле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А для владельцев электрических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тариф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снижен на 30%, чт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снижает стоимость зарядки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скорить подготовку к началу сезона ремонта дорог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ят закупку материалов, а также заготавливают песок и щебень из местных карьеров.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е заводы выполняют проверку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лабораторий. Проводится ремонт асфальтоукладчиков, катков и автогудронаторов.

–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ая подготовка позволит подряд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а как можно раньше зайти на свои объекты и выполнить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объем работ,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Эдуард Ри.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е заводы ведут ак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дорожному сезону, все наши предприятия обладают необходимой технико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кадрами,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ГКУ «Управление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дим Думанский.

Всего в 2022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в порядке приведут более 30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 в том числе –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В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вошли дороги, которыми каждый день пользуются тысячи водителей и пассажиров. В их числе –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Лиственничное – Охотское до поворота на карьер «Лиственничный», улица Авиационная от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до улицы Ленина, улица Зеленая в селе Березняки, улица Комарова от улицы Дружбы до улицы 2-я Набережная.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селе Новосибирское,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объек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атся работы на долгожданном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частке по улице Украинская.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и приведению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Кострома в селе Костромское.

Напомним, в январ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ся к вице-премье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преду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ю Трутневу с просьбой оказа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орог на островах.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 сейчас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дороге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Совместно с Росавтодором е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о 2025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требу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к новым жилым микрорайонам, которых в регионе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받은 언어와 문화 체험

##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렉세이입니다.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 서비스 대학교 3학년생이고, 전공은 <<국제관계>>입니다. 한국한림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에 왔으며 학기동안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 교육을 계속하고 싶지만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능력은 지역 주민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중요하고, 한국 최고의 대학교중 하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이었고, 몇 개월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 쉽다는 결론이 맞습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외국인들을 매우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거나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그 나라에 대해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여기에 머물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기관 시스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교통 시스템, 출입국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업무인 서류 작업도 한국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업외에 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견뎌야 할 스트레스는 학교나 직장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저를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의 많은 주민은 당연히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공기가 깨끗하고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남한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남한 북부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의 기후는 남부 도시보다 약간 춥습니다. 춘천에는 두 개의 명문 대학교 (강원대학, 한림대학)가 있어서 학생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페, 경기장,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식당, 오락실, 노래방 카페, 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쇼핑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

은 대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춘천역이나 남춘천역 (한림대학교까지 버스로 10분 걸려요) 에서 하차 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매우 발달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유용한 스마트폰 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 커스가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 사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대학 시설 (도서관,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무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 과정에서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현지인보다 외국인 친구와 소통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주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모든 한국 학생들은 먼저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쉽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한국어 교수님들은 수업에서 영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1급 교실 수업에서도 한국어로 아주 친절히, 또렷하게 말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유학생들이 영어로 질문하면 교사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한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하시고, 매우 속이 깊으시며 유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규칙을 반복해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최고의 언어와 문화체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제3외국어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는 언어의 나라에서 유학생활입니다.

**그라쉴프 알렉세이,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 서비스 대학교, 국제 관계전공**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 16만1,878명 참여 투표율 71.6%

## 19대 대선보다 3.7%포인트 감소

### (3면의 계속)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 218조의24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사정에 따라 공관개표 대상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됐으나 2월 23일 전에 귀국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고, 선거일인 3월 9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 2022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에서

## 문의사항:

### Q.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 사할린동포법상 동반가족의 범위에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사할린동포법 제2조제2호상 '동반가족'의 정의 관련, △동반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사할린동포를 전제하는 개념이고, △사할린동포 사후에도 동반가족을 지원한다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부재하였다는 점을 고려, 상기와 같이 해석

※ '동반'의 의미 :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따위의 행동을 할 때 함께 짝을 하다

### Q.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 국적 유지가 가능한지?

☞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자녀(사할린동포 2세)는 국적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영주귀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자녀(사할린동포 2세)의 배우자는 각각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① 사할린동포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② 사할린동포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혼인한 후 3년이 경과되었으며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사망,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복수국적 유지 불가

☞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반가족(사할린동포 3, 4세 등)의 경우 한국 국적 취득 후 복수국적 유지 곤란

### Q. 기존에 사할린동포와 함께 장애자녀가 영주귀국한 경우, 직계비속 1명이 추가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것인지?

☞ 기존에 영주귀국한 장애자녀는 사할린동포법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에 포함되며,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직계비속 1명의 추가 신청 자격 불인정

### Q. 동반가족 중 직계비속 1명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할린동포가 신청서에 서명·동의한 직계비속 1명만을 선정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 직계비속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이전에 사할린동포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 신청 권고

☞ 복수의 직계비속이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사할린동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직계비속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Q. 이미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귀국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신 사할린동포의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재신청이 가능한지?

☞ 이미 영주귀국하셨다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신 사할린동포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신규 신청자격 불인정

### Q. 사할린동포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 러시아 신분등록청 발급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외에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국적확인서 또는 △대한민국 (구)호적 등 사할린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 (구)호적의 경우, 신분정보(성명/생년월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Q. 당해 연도 영주귀국 가능 인원에 비해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선발 우선순위 기준은?

☞ 금년도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 예정임

※ 2021년도 대상자 선정위원회 선정기준 (1순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

(2순위)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이 신청한 경우

- 2순위 신청그룹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으로 대상자 선정

### Q. 작년에 영주귀국을 신청하였으나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음. 올해 동일한 자녀의 영주귀국을 희망하는데 재외공관에 제출한 출생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재외공관에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을 권유함

### Q. 작년에 아포스티유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재발급이 필요한지?

☞ 사할린동포와 직계비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및 본인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이혼증명서 등)의 경우는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증명서는 반드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Q. 배우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한지?

☞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Q. 작년에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음. 사본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한지?

☞ 반드시 증명서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함

### Q.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질병으로 당일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당해연도에 입국하지 못한 사할린동포는 원칙적으로 다음 년도에 재신청하여야 함

### Q. 영주귀국 후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하면 복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 소득 발생에 따른 복지 급여 지원자격 상실 여부는 복지급여별, 소득종류·금액별로 상이함

### Q. 동반가족의 소득이 부모인 사할린동포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간의 생계·주거 분리 여부\*, 소득인정액 금액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지자체)의 구체적인 조사 후 확인 가능

\* 동반 가족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동일 가구원으로 조사 및 보장이 원칙

※ 기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적십자사: ☎ 02-3705-3795 / 02-3705-3796

② 관할 재외공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주벨라루스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알마티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 재외공관 연락처는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 이 모 저 모

## (2면의 계속)

2015년부터 전 러시아 동계 스포츠 종목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일은 소치 올림픽 종료 기념으로 제정된 날이다.

### День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гонкой,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и другими забавам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могли участвовать дети с любым уровнем подготовки.

Значимое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проходило 26 и 27 февраля. Программу разделили на несколько площадок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острова. Это сделали для недопу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а такж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хватить население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раздником охвач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а. Например, в Холмске мы провели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а также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в Долинске прошел турнир по хоккею в валенках, а в Корсакове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лыжных гонках, - рас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Олимпийского сов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Глух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аздник отметили на нижней и средней станциях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амых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жда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атанию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от клуба «Неваляшка». Детям показали основы

катания и спуска.

Еще один мастер-класс провела школа «Bike Me Sakhalin». Здесь для детей от 2 до 5 лет состоялись пробные заезды на беговелах, а также настоящие гонки для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й.

Для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ил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 участием аниматоров, а также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отмечается с 2015 года. Праздник был создан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Сочи 2014 года.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사들에게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무료 강습

속련된 강사들이 약 30명의 교사들에게 스키와 스노보드 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게오르기 카를로브 주 두마의원의 주도로 개설된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벌써 6년째 '고르니 워즈두흐'스키장에서 주 중심의 교사들을 위한 스포츠학교가 열리고 있다.

이 기획은 사할린주의 스노보드 및 알파인스키 종목 연맹이 주관하고 있다.

모든 참가 교사들에게 스키 장비와 케이블카 탑승, 강사의 강습이 제공된다.

"한 달 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강하는데 이것이 우리 스포츠학교의 시험이다. 6년간 이 기획에 180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가했다. 이들 모두 자신감 넘치는 스키 종목 애호가들이 되

었다. 강사들은 강습생들에게 스키와 보드 위에 서는 법만 아니라 두려움을 떨치는 법도 가르쳐주어 이제는 강사 없이도 스스로 탈 수 있고, 이 스포츠 종목을 즐기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알파인스키 종목에 대한 애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라고 주 두마의원인 게오르기 카를로브가 덧붙였다.

### Учи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есплатно освоят горные лыжи и сноуборд

Опыт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научат кататься на лыжах или сноуборде около 30 педагогов.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еоргия Карлова, депут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уже 6 лет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открывается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для уч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Операто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а Федерация горнолыж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сноубор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оставят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дъемы по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и занятия с инструкторами.

«Через месяц мы все вместе совершим спуск, это и будет экзаменом нашей школы. За шесть лет в проек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80 педагогов. Все они стали уверенными любителями. Они научились не просто стоять на доске или лыжах, но и избавились от страха, и теперь 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ез инструктора наслаждать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наши учителя, смогут привить любовь к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нашим детям», - сказал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http://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http://eda.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